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문 은 영 윤 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또래로부터 잘 수용되지 못한 경험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경험이 행동특성 및 갈등해결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서울시와 인근 지역 3개 중학교 2학년(총 9학급)에 재학중인 남자 청소년 454명(평균 연령 13.68세, $SD=.48$)을 대상으로 사회측정법을 통하여 5가지 또래지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즉 인기있는 집단, 논쟁거리인 집단, 보통집단, 무시되는 집단, 그리고 배척받는 집단으로 나누었고, 또래의 거명을 통해 8가지 행동특성과 세가지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였으며, 자기보고법으로 고독감 및 비행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인기있는 집단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였고, 논쟁거리인 집단은 협동을 잘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였다. 무시되는 집단은 비주장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배척받는 집단은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갈등해결전략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있었는데, 인기있는 집단은 갈등상황에서 타협을 통해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논쟁거리인 집단이나 배척받는 집단은 화를 내어 보복하는 전략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무시되는 집단이 고독감 및 사회적 불만족을 가장 많이 느꼈으며, 논쟁거리인 집단과 배척받는 집단이 비행을 가장 많이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또래의 수용이 정서적 및 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우정관계 및 그 관계의 질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래관계는 어린 아동에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는 청소년들에게 더 중요하다. 친구는 동료의식과 레크리에이션의 중요한 원천이며 충고를 주고 받으며, 가치있는 소유물을 공유하고 또 믿을 수 있는 단짝이자 비평가인 동시에, 충성심있는 동지로서 행동하고 스트레스나 과도적 시기에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존재이다(Asher, 1990). 더우기 부모의 영향보다는 또래의 영향이 커지고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Petersen & Hamburg, 1986) 확장

된 사회적 관계로부터 청소년이 고립된다면 그 이후의 발달에서 부정적인 결과와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Parker & Asher, 1987).

구체적으로, 아동기에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한 경험은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정신병리나, 비행, 범죄 등과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낮은 수준의 또래수용 경험은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결과를 예측하고자 할 때 보다 더 강력한 변인이 될 수 있다(Parker & Asher, 1987).

낮은 수준의 또래수용경험과 이후 발달과정에

서의 부적응적인 결과간의 관계는 극단적으로 인과적이거나 부차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낮은 수준의 또래수용 경험이 부적응에 매개변인(mediating variable)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또래로부터의 배척경험은 사회적 기술부족이나 유전적인 소인에 의한 영향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또는 또래로부터 잘 수용됨으로써 그런 변인들의 영향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Kupersmidt, Coie, & Dodge, 1990).

또래지위의 측정

또래지위(Peer Status) 또는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는 주로 또래로부터 거부 또는 수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몇가지 측정방법이 있으나 주로 다음 두가지 또래평정(Peer Assessment)방법을 통해 측정되어왔다. 그 한가지는 전통적인 Moreno의 사회측정법(Sociometric measure)이다. 이 방법은 “함께 놀고 싶은”, “함께 일하고 싶은”, “생일날 초대하고 싶은”과 같은 문장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같은 반 친구를 지명(nomination) 또는 평정(rating)하는 것이다(Moreno, 1934). 이 방법을 통해 인기아동과 비인기아동으로 구분하고, 비인기아동은 또래에 의해 수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사회측정법을 변형한 것이 긍정적인 또래거명과 부정적인 또래거명을 함께 이용하는 방법이다(Coie, Dodge, & Coppotelli, 1982; Coie & Dodge, 1983). 즉 아동에게 “가장 좋아하는”, “가장 싫어하는”(또는 “가장 덜 좋아하는”) 같은 반 또래의 이름을 보통 3명씩 표시하게 한다. 이 방법 역시 Moreno의 측정방법에서 의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래의 수용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다(Masten, Morrison, & Pellegrini, 1985).

그러나 Coie 등 (1982)의 방법은 기존의 사회측정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oie 등(1982)은 전통적인 사회측정적 연구들이 인기집단과 비인기집단을 나누기 위해 이용한 방법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긍정적인 거명(가장 좋아하는 또래 이름 쓰기)과 부정적인 거명(가장 싫어하는 또래 이름 쓰기) 사이에는 상관이 매우 적기때문에 부정적인 거명없이 긍정적인 거명만으로 비인기집단을 변별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둘째, 전통적인 사회측정법은 연구자들마다 여러가지 기술문으로 또래에 의한 수용여부를 측정하기 때문에 연구간의 비교나 발달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한 다른 사회측정법이 바로 Coie 등 (1982)의 방법이다. 이 방법은 반에서 “가장 좋아하는” 또래와 “가장 싫어하는” 또래를 보통 3명씩 적게 하여 또래지위(Peer Status)의 차원 및 유형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3, 5, 8학년 학생 311명에게 위와 같은 긍정적 거명과 부정적 거명을 하게 하여 또래로부터 받은 거명점수를 각 개인점수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 점수를 학년단위로 표준점수화하여 “가장 좋아하는 점수”(Like Most : LM)와 “가장 싫어하는 점수”(Like Least : LL)를 각각 따로 계산하였다.

한편, 이 점수들을 통해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 : SP) 점수와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 SI) 점수를 산출하였다. 사회적 선호 점수는 가장 좋아하는 점수에서 가장 싫어하는 점수를 뺀 점수이고(LM-LL), 사회적 영향 점수는 가장 좋아하는 점수와 가장 싫어하는 점수를 더한 값이다(LM+LL). 이 점수들은 또 학급 단위로 표준점수화되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점수는 사회적 선호(SP)와 사회적 영향(SI)이라는 두 차원 내에서 사회적 지위의 차원적인 정보로 이용된다.

한편 Coie 등 (1982)은 사회측정적 지위를 여러가지 유형으로도 나누었다. 즉 사회측정적 지위를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인기있는 집단(Popular Group), 논쟁거리인 집단(Controversial Group), 보통집단(Average Group), 무시되는 집단(Neglected Group), 배척받는 집단(Rejected Group), 이 다섯 가지 집단으로 나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은 기타로 취급하였다.

그리고 국민학교 3학년 및 5학년 208명을 5년간에 걸쳐 매년 사회측정적 자료를 수집하였을 때, 첫번째 측정된 사회적 선호 점수와 5년 후 측정된 점수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첫번째 측정 시기에 3학년이었던 집단보다 첫번째 측정 시기에 5학년이었던 학생들의 사회적 선호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 점수는 두 측정시기에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한편 유형별로 본 사회적 지위집단은 처음 측정 시기에 5학년이었던 학생들의 경우, 5년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한 시기의 사회적 지위는 바로 그 1년 전의 지위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Coie & Dodge, 1983).

이와같이, Coie 와 Dodge(1983)의 사회측정법은 또래지위의 차원적 및 유형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평가방법과도 비슷한 결과를 보일뿐만 아니라 시간경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더구나 이 방법에 따라 비인기집단 중에서도 배척받는 집단과 무시되는 집단으로 세분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유용하다(Asher & Dodge, 1986). 그 이유는 무시되는 집단은 친구가 없기는 하지만 또래들이 특별히 싫어하는 아동은 아닌 반면, 배척받는 집단은 또래들이 분명하게 싫어하는 대상이며 정서적·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우선 배척받는 집단은 무시되는 집단보다 더 공격적이고 와해된 행동을 보이며,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졌을 때에도 계속 배척받으며, 가장 고독하게 느낀다. 그리고 이후 인생단계에서

도 더 많은 적응문제를 보인다. 반면 무시되는 집단은 또래에 의해 수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배척받는 집단과 동일하지만, 적응에 취약한 집단은 아니다(Asher & Dodge, 1986).

최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또래지위와 행동특성과의 관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매우 비슷하였다. 그리고 5가지 또래지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각 행동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변량분석을 했을 때 인기있는 학생들은 긍정적인 상호작용 속성에 더욱 많이 거명된 반면, 배척된 학생들은 보통집단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 속성에는 적게 거명되었고 부정적인 상호작용 속성에는 더욱 많이 거명되었다. 논쟁거리인 학생은 부정적인 상호작용 속성에 더욱 많이 거명되었다는 점에서는 배척된 집단과 비슷하였으나 긍정적인 행동특성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반면 무시되는 학생들은 그 어떤 행동특성에서도 보통집단과 다르지 않았다(Parkhurst & Asher, 1992).

갈등해결전략

청소년들은 가족관계 및 학교에서의 또래관계 등에서 흔히 갈등을 경험하며 오래 지속되는 친숙한 관계에서 갈등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갈등을 표현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 갈등이 은폐되어 있거나 자주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인간관계는 계속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Rubenstein & Feldman, 1993).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경험하는 갈등은 부정적인 역할 못지 않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자율적인 생각과 대인간 협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심리사회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Vuchnich, 1987). 따라서 청소년의 대인관계를 연구할 때 갈등의 유무보다는 긍정적인 갈등해결 방식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갈등해결행동과 적응과의 관련성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어왔다 (Bryant, 1992 ; Kazdin, Esveldt-Dawson, French, & Unis, 1987 ; Rubenstein & Feldman, 1993).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세가지 갈등해결행동 - 협상, 공격 또는 회피 - 을 자기보고법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부모와의 갈등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청소년들은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적응상의 결함을 나타냈다. 그리고 갈등상황을 회피해버리는 청소년들은 주로 우울증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반면,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청소년들은 적응상의 문제점이 가장 적었다(Rubenstein & Feldman, 1993).

뿐만 아니라 품행장애 아동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도 문제해결기술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Kazdin 등, 1987). 즉 품행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기술향상 훈련조건, 관계개선 훈련조건, 접근-통제조건으로 나누고 훈련을 시킨뒤 그 효과를 1년 동안 추적 조사하였다.

이때 문제해결기술훈련(Problem Solving Skill Training : PSST)은 갈등상황시 대안반응 생성, 수단-목표 설정, 결과에 대한 사고, 타인의 관점 취득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훈련이고, 관계개선훈련(Relationship Therapy : RT)의 목적은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 공감, 무조건적인 긍정적 보상들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문제해결기술 훈련의 효과는 1년이 지난 뒤에도 상당히 유지되었다. 즉 다른 두 조건에 비해 외적인 공격행동이 감소하였고, 집과 학교에서의 전반적인 행동문제가 감소하였으며,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인 적응수준 또한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갈등해결행동은 또래들의

수용 또는 거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다 (Bryant, 1992). 즉 같은 반 친구들이 또래의 갈등해결행동을 평가한 결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해 화를 내어 보복하는 전략을 주로 쓰는 아동들은 또래의 배척을 받는 반면, 갈등이 생겼을 때 타협을 통해 조용히 해결하는 아동들은 인기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또래관계의 장애가 갈등해결전략과 같은 사회적 기술의 결핍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고독감 및 사회적 불만족

여러 선행 연구에서 또래관계의 장애는 고독감과 매우 관련이 많다고 밝혀지고 있다. 또래관계에서 배척받는 집단은 보통집단에 비해 좀 더 고독하다고 느끼는 반면, 무시되는 집단은 보통집단과 비교할 때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Asher, Parkhurst, Hymel, & Williams, 1990).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이전 아동(Cassidy & Asher, 1992), 국민학교 아동(Asher & Wheeler, 1985), 그리고 남녀 중학생(Parkhurst & Asher, 1992)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관성있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같은 반 또래들이 아주 싫어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은 고독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최근 Rubin, LeMare 및 Lollis(1990)는 배척집단 내에서도 두가지 하위 유형이 존재하며, 이 두가지 유형의 배척집단은 그 출발점, 경로와 결과가 서로 다르리라고 주장하였다. 즉 공격적이고 말썽을 일으키는 유형의 경우에는 초기 아동기에 이미 문제로 드러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악화되다가 청소년기에 비행과 같은 행동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두번째 유형인 사회적인 위축 집단은 첫번째 집단보다 시기적으로 더 늦은 후기 아동기에 장애로써 확인된다. 그리고 이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쁜 평판을 얻

어 결국, 청소년기에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장애에 취약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Parkhurst 와 Asher(1992)는 또래에 의해 배척된 집단을 두 가지 다른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두 집단은 고독감 수준에서 서로 다르리라고 예측하였다. 즉 배척받는 집단은 행동적인 측면에서 두 하위집단으로 분명히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공격적이고 말썽을 일으키는(Aggressive and Disruptive)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형이다. 사회적 위축형은 외향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갈등상황을 회피하려는 집단이다. 그리고 이들 연구자들은 Rubin 등(1990)이 제안한 두가지 유형의 배척받는 집단이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더욱 잘 확인되리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사회측정적 평가에 의해 배척되는 집단으로 구분된 청소년들을 행동기술문항에 의해 다시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싸움을 먼저 거는”의 문항과 “쉽게 괴롭힐 수 있는”의 문항에 ‘평균 + 1 표준편차’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배척받는 학생들의 40%는 “싸움을 먼저 거는” 부정적인 상호작용 속성에 많이 지목되었고 “쉽게 괴롭힐 수 있는” 속성에는 적게 지목되었다. 이러한 학생들을 “공격적인 배척집단(Aggressive - Rejected Group)”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배척된 집단의 27%는 “쉽게 괴롭힐 수 있는” 속성은 많았으나 “싸움을 먼저 거는” 속성에는 적게 지목되었는데 이 학생들은 “복종적인 배척집단(Submissive - Rejected Group)”으로 명명되었다. 반면 4%만이 두 행동 기술문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배척받는 집단 중에서도 하위 유형에 따라 고독감 수준이 달랐다. 복종적인 배척집단은 보통집단보다 고독감 수준이 더 높았으나, 공격적인 배척집단이 느끼는 고독감은 보통집단의 학생

과 다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Rubin 등(1990)이 제안한 바와 같이, 배척받는 집단 중에서도 두 하위 유형에 따라 적용상의 결과는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행

또래의 배척은 고독감 뿐만 아니라 비행에도 매우 위험한 요인이며(Parker & Asher, 1987; Patterson, 1986; 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특히 장기적인 효과를 갖는다. 한 연구에서 5학년때 또래로부터 배척된 아동들이 7년 후 고교졸업시기에 학교수업태만, 유급, 학교중퇴, 경찰과의 접촉이나 재판경험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았다(Kupersmidt & Coie, 1990).

혹인 3학년 아동인 두 출생동시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중학교 1학년 말에 내적(Internal) 및 외적(External) 적응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또래배척의 영향이 지지되었다(Coie, Lochman, Terry & Hymel, 1992). 이 연구에서, 3학년때의 또래지위는 중학교 1학년 말에 부모들이 보고한 외적 및 내적 장애와 자신이 보고한 내적 문제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3학년때의 공격성은 자신이 보고한 내적 및 외적 문제와 부모가 보고한 외적인 행동문제를 예측하였다.

Patterson(1986), Patterson 등(1989)은 이러한 또래배척의 효과를 장기종단적인 관점에서 인과적인 모델로 제시했는데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초기 아동기)에서는 부모의 비효율적인 양육방식과 가족의 환경적인 맥락이 아동의 품행장애를 유발하며, 2단계(중기 아동기)에는 1단계의 품행장애가 학업성적부진과 또래의 배척으로 발달하여 3단계(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와서는 일탈또래집단에 가입하여 청소년기의 만성적인 비행에 가담하게 된다.

위와 같은 가정에 기초하여, Dishion 등(1991)은 12세에 반사회적인 도래와 접촉하게 되는 예언변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10세때의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 감독소홀, 도래의 배척, 성적 부진이 12세때의 반사회적인 도래와의 접촉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그리고 각 변인의 독특한 공헌도를 분석했을 때, 10세때의 반사회적인 도래와의 접촉 및 아동의 반사회적인 행동 변인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선호, 학업기술, 부모의 훈육, 모니터링(감독)이 모두 유의한 효과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중요 변인이 분석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변인은 아무런 통계적인 의미가 없었고, 오직 학업성적 부진과 도래의 배척만이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남아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반 도래에 의한 수용 또는 배척 여부가 비행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었다(권정혜, 이봉건과 김수현, 1992). 이 연구에서는 부모양육 변인으로 부모의 훈육방식 및 그 효율성, 부모의 감독,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을 측정하였고, 교우관계변인으로는 교우간 강압적 행동, 교우간 선호도 및 교우간 사회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5가지 비행유형, 즉 '상습적 비행', '집단적 비행', '가족이탈적 비행', '유흥업소출입 비행', '성관련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각기 달랐다. 또 부모의 훈육방식, 부모의 감독, 교사에 의해 평정된 교우간 사회성은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았지만, 교우간 강압적 행동이나 교우간 선호도는 비행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고자 할 때 교우간의 선호도나 강압적인 행동과 같은 변인이 좀 더 직접적인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래로부터 수용되거나 배척받는 경험이 초기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학교에서 도래로부터 수용 또는 배척되는 청소년들이 가진 행동특성과 이들이 도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주로 의존하는 갈등해결전략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보다 더 고독한지 또는 비행을 많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반 친구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도래로부터 수용되지 않고 또한 도래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평판을 듣게 되어, 학교에서 고독을 느끼며 또 비행을 많이 하리라고 예상된다.

방법

피험자

피험자는 서울시와 인근지역 6중학교, 7중학교, 8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 중 9개 학급 46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최종적인 분석에는 같은 반에서 이름이 같은 학생들과 응답이 불성실한 13명을 제외하고 454명을 포함시켰다. 한 학급의 재적 인원은 52~54명 정도였고, 10월 말에 조사하였기 때문에 도래지위를 평정할 수 있을 만큼 같은 반 학생들끼리 충분히 친숙한 상태라고 간주하였다. 그리고 피험자들의 평균 연령은 13.68세($SD=.48$)였다.

측정 도구

1. 도래지위의 측정

도래지위는 Coie 와 Dodge (1983)가 사용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한 학급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 '가장 싫어하는 친구'를 5명씩 적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각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거명 및 부정적인 거명 점수를 더한 후 학년 단위로 가장 좋아하는 (Like Most : LM)점수와 가장 덜 좋아

하는(Like Least : LL) 점수로 표준점수(Z 점수)화하였다. 여기에서 사회적 선호 (Social Preference : SP) 점수는 표준점수화된 LM 점수에서 표준점수화된 LL 점수를 뺀 점수이다. 사회적 영향 (Social Impact : SI) 점수는 표준점수화된 LM 점수와 표준점수화된 LL 점수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선호(SP) 점수와 사회적 영향 (SI) 점수는 각 학급단위로 표준점수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험자를 인기있는 집단, 배척받는 집단, 무시되는 집단, 논쟁거리인 집단, 보통집단 등 5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즉 인기 있는 집단(Popular group)은 표준점수화된 사회적 선호 (SP) 점수가 1보다 크고 가장 좋아하는 점수(LM)가 0보다 크고 가장 싫어하는 점수(LL)가 0보다 작은 집단이며, 논쟁거리인 집단(Controversial group)은 표준점수화된 사회적 영향 점수(SI)가 1보다 크고 가장 좋아하는 점수(LM)와 가장 싫어하는 점수(LL)는 모두 0보다 큰 집단이다. 보통 집단(Average group)은 표준점수화된 사회적 선호 점수(SP)와 표준점수화된 사회적 영향 점수(SI)가 모두 $-0.5 \sim 0.5$ 인 경우이며, 무시되는 집단(Neglected group)은 표준점수화된 사회적 영향 점수(SI)가 -1 보다 작고 가장 좋아하는 점수(LM), 가장 싫어하는 점수(LL)는 모두 0보다 작은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배척받는 집단(Rejected group)은 표준점수화된 사회적 선호 점수(SP)가 -1 보다 작고 가장 좋아하는 점수(LM)는 0보다 작고 가장 싫어하는 점수(LL)는 0보다 큰 집단이며, 그외 모든 청소년은 기타에 해당된다.

2. 행동특성 평가

8가지 행동기술문을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반응을 인원에 제한없이 지명하게 하였다. “모여서 협동을 잘하는”, “신뢰할 수 있는”, “친절한”과

같은 문장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문항이며 “싸움을 먼저 거는”, “약올릴 수 없는”, “집단에서 일을 망치는”과 같은 행동기술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수줍어하는”, “쉽게 괴롭힐 수 있는”과 같은 문항은 비주장적인(unassertive) 태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8가지 행동특성에 대해 제한없이 거명하게 하였는데 이는 각 행동특성에 대해 각 개인의 점수를 더 큰 단위로 표준점수화하면 각 학급의 특징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는 제한점이 있고 또 다른 학생의 점수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Parkhurst & Asher, 1992). 따라서 8가지 행동특성 점수는 그 행동특성에 지목된 횟수를 설문에 응한 각 학급의 학생 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백분율(%) 점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갈등해결전략

갈등해결전략(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은 친밀한 대인 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기술로써 본 연구에서는 Bryant (1992)가 또래지위와 함께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을 썼다. 세가지 유형의 갈등해결행동을 기술하고 이에 적합한 반 친구를 5명씩 지명하게 하였다. 3가지 유형의 갈등해결전략이란 화를 내어 보복하는 반응, 조용히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반응, 그리고 회피 또는 철회하는 반응전략이다. 행동특성과 마찬가지로 세가지 유형의 갈등해결전략에 대해 또래로부터 거명된 횟수를 설문에 응한 각 학급의 학생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백분율(%) 점수를 썼다.

4. 고독감 및 사회적 불만족

본 연구에서는 Asher 와 Wheeler(1985)의 고독감 및 사회적 불만족(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

관적인 측면의 또래배척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특히 학교 상황에 맞추어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24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이다. 24개 문항 중 8개 문항은 취미에 관한 질문, 예를 들어 “나는 독서를 좋아한다”,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외 16개 문항은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신의 고독감에 관한 것(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서 외롭다), 현재의 또래관계에 대한 자신의 평가(예를 들어, 나는 우리 반에서 친구가 전혀 없다), 중요한 또래관계에서 필요한 요건이 어느 정도나 충족되고 있는가(예를 들면, 도움이 필요할 때 학교에서 내가 찾아갈 친구가 없다),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지각(“나는 반 친구들과 협동을 해서 일을 잘한다”와 같은 문항)을 측정하고 있다 (Parker & Asher, 1993).

고독감에 관한 16개 문항에 대해 가능한 점수 범위는 16~80점이며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88로써 만족할 만한 문항간 신뢰도를 보였다. 그리고 주성분 요인분석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통해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고유가(Eigenvalue)가 1이상인 두 요인이 산출되었다. 그런데 “나는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쉽게 사귀다”, “나는 반 친구들과 협동을 해서 일을 잘 한다”와 같은 문항은 흥미를 묻는 항목과 고독감 및 사회적 불만족 항목에 서로 높은 요인부하(factor loading)를 보였다. 그러나 분석에서는 고독감 및 사회적 불만족 항목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5. 비행척도

곽금주와 문은영(1993)의 연구에서 사용한 비행 척도 48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여러분의 또래가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이 척도

는 “어른에게 대들거나 반항한 적이 있다”, “불량 친구와 어울려 다닌 적이 있다”, “무단결석을 해 본 적이 있다”와 같은 사소한 비행문항과 “패싸움을 해본 적이 있다”, “본드, 부탄가스를 흡입해 본 적이 있다”와 같은 범범에 해당하는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 “없다”의 응답은 1점, “많다”의 응답은 5점인 5점 Likert 척도이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48~240점이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0으로 척도의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 그리고 주성분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고유가가 1이상인 여섯 요인이 산출되었다.

6. 학업성적

이외 부차적인 관심으로 학교성적이 또래지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담임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성적에 관한 자료를 받았다. 성적은 학기말 평균 점수를 표준점수(T 점수)화 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절차

조사는 1993년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각 학교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가 직접 학급에 들어가서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목적 및 질문지의 내용에 관해 미리 충분히 설명하였다. 질문지는 사회측정적 지위를 측정하는 문항과 행동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문항,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는 문항, 학교에서의 고독감을 측정하는 고독감 및 사회적 불만족 척도, 그리고 비행척도로 구성되었다(총 85 문항). 조사에 걸린 시간은 15분 내외였다.

결 과

1. 또래지위

또래로부터 수용되는지 또는 배척받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피험자로 참가한 청소년들을 5가지 또래지위 집단으로 나누었다. 전체 454명 중에 266명(58.6%)이 이 기준에 의해 구분되었으며 188명(41.4%)은 기타였다. 구분된 학생들 중 인기있는 집단은 52명(20%)이었고, 논쟁거리

인 집단은 18명(7%), 보통집단은 97명(36%), 무시되는 집단은 49명(18%), 그리고 배척받는 집단에는 50명(19%)이 분류되었다.

그리고 이들 5가지 집단 별로 긍정적, 부정적 상호작용 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8가지 행동특성 모두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사후검증(Scheffé)은 .05수준에서 실시하였다(표 1 참조).

이 결과를 또래지위 집단별로 설명하면, 인기있는

표 1. 5가지 또래지위 집단에 있어서의 행동특성 점수

	또 래 지 위 집 단					F
	인기집단 (n=52)	논쟁집단 (n=18)	보통집단 (n=97)	무시집단 (n=49)	배척집단 (n=50)	
1. 협동을 잘한다 :						
평균	9.79 ^a	8.91 ^a	3.57 ^b	1.19 ^b	1.44 ^b	29.91**
표준편차	8.05	8.09	3.94	2.03	1.99	
2. 싸움을 먼저 건다 :						
평균	.56 ^b	10.27 ^a	1.42 ^b	.79 ^b	11.90 ^a	34.99**
표준편차	1.34	14.99	2.01	1.75	11.03	
3. 신뢰할 수 있다 :						
평균	8.13 ^a	5.30 ^{a,b}	3.34 ^b	.95 ^{b,c}	1.13 ^{b,c}	32.13**
표준편차	5.77	5.41	3.40	1.70	1.81	
4. 수줍어한다 :						
평균	2.23 ^{a,b}	2.99 ^{a,b}	1.75 ^b	4.91 ^a	.31 ^b	4.67*
표준편차	4.36	8.95	4.70	8.48	.73	
5. 약올릴 수 없다 :						
평균	2.20 ^b	9.37 ^a	2.31 ^b	1.74 ^b	6.29 ^a	9.44**
표준편차	2.06	9.73	4.32	3.39	10.50	
6. 일을 망친다 :						
평균	.97 ^b	4.11 ^{a,b}	1.46 ^b	1.11 ^b	7.30 ^a	20.94**
표준편차	1.88	3.18	3.47	1.85	7.91	
7. 친절하다 :						
평균	9.17 ^a	4.35 ^{b,c}	3.33 ^b	2.49 ^{b,c}	.78 ^c	27.05**
표준편차	7.65	4.67	3.37	3.12	1.19	
8. 괴롭힐 수 있다 :						
평균	3.02 ^{a,b}	.76 ^b	2.81 ^b	6.41 ^a	2.71 ^b	4.86*
표준편차	5.75	1.35	5.38	7.42	5.33	

* $p < .01$ ** $p < .001$ 같은 영문자는 .05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각의 자유도는 (4, 261)이다.

집단은 협동을 잘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친절하였다. 논쟁거리인 집단은 협동을 잘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싸움을 먼저 걸고 약올릴 수 없는 친구였으며 인기있는 집단이나 보통집단에 비해 친절하지는 않았다. 무시되는 집단은 수줍어하고 또래들이 괴롭히는 대상이었다. 마지막으로 배척받는 집단은 싸움을 먼저 걸고 약올릴 수 없으며, 집단적으로 함께 하는 일을 자주 망쳐버리고 또 5가지 집단 중 가장 친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긍정적, 부정적 거명과 8가지 행동특성 사이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지목되는 것은 협동을 잘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친절하다는 특성과 매우 강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하는 일을 망치고, 쉽게 괴롭힐 수 있는 행동특성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은 싸움을 먼저 걸고, 약올릴 수 없다는 것, 여럿이 함께 하는 일을 망치는 것, 그리고 친절하다는 특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쉽게 괴롭힐 수 있는 특성과는 부적인 상관성이 있었다(표 2 참조).

즉 또래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반에서 협동을 잘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친절하지만, 반면 싫어하는 사람은 싸움을 먼저 걸고, 여럿이 함께 하는 일을 망

치고, 또 약올릴 수 없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많았다.

2. 갈등해결전략

5가지 또래지위별로 갈등해결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화를 내는 전략과 조용한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전략면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반면 회피하는 전략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표 3 참조).

구체적으로, 논쟁거리인 집단과 배척받는 집단은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화를 내는 반면, 인기있는 집단은 조용하게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평가되었다. 반면 무시되는 집단은 화를 내서 보복을 하거나, 조용히 타협을 하는 갈등해결전략을 쓰기보다는 갈등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F_{4,261}=2.06, p<.087$).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인기있는 집단은 또래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지만 논쟁거리인 집단이나 배척받는 집단은 같은 반 학우와의 갈등상황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였다. 반면 무시되는 집단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방법에 의지하기보다는 갈등을 회피해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표 2. 행동특성과 긍정적, 부정적인 거명 사이의 상관

변인	1	2	3	4	5	6	7	8	9
1. 협동을 잘한다	-								
2. 싸움을 먼저 건다	.05	-							
3. 신뢰할 수 있다	.62**	-.06	-						
4. 수줍어한다	-.05	.03	.13*	-					
5. 약올릴수 없다	.20**	.43**	.13*	.07	-				
6. 일을 망친다	-.07	.47**	-.17**	-.07	.19**	-			
7. 친절하다	.56*	-.20**	.67**	.14**	.05	-.16**	-		
8. 괴롭힐 수 있다	-.12*	-.11*	-.10	.27**	-.07	.15*	-.01	-	
9. 긍정적 거명	.60**	-.09	.62**	.06	.06	-.17**	.54**	-.14*	-
10. 부정적 거명	.01	.66**	-.07	.02	.47**	.49**	.27**	-.22**	-.10

* $p < .01$. ** $p < .001$

표 3. 또래지위집단 별 갈등해결전략

	또 래 지 위 집 단					F
	인기집단 (n=52)	논쟁집단 (n=18)	보통집단 (n=97)	무시집단 (n=49)	배척집단 (n=50)	
화를 내어 보복하는 전략 :						
평균	2.79 _b	21.53 _a	4.20 _b	1.90 _b	16.86 _a	34.37**
표준편차	3.56	18.46	5.67	2.19	15.84	
조용한 타협 전략 :						
평균	10.32 _a	5.21 _b	3.62 _{b,c}	2.48 _{b,c}	1.25 _c	32.94**
표준편차	7.52	5.35	3.60	2.58	1.81	
회피 / 철회 전략 :						
평균	4.05	2.68	3.47	4.95	2.83	2.06 [~]
표준편차	3.92	4.28	4.52	4.82	2.87	

* $p < .01$ ** $p < .001$ [~]marginal 같은 영문자는 .05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도는 (4, 261)이다.

표 4. 또래지위에 따른 고독감, 비행, 그리고 학교성적

	또 래 지 위 집 단					F
	인기집단 (n=52)	논쟁집단 (n=18)	보통집단 (n=97)	무시집단 (n=49)	배척집단 (n=50)	
고독감 :						
평균	26.51 _b	26.78 _b	29.28 _b	35.59 _a	30.13 _{a,b}	7.59**
표준편차	6.19	8.08	8.81	9.53	9.95	
비행 :						
평균	79.08 _{a,b}	91.89 _a	77.97 _b	77.69 _{a,b}	87.10 _a	4.01*
표준편차	16.19	24.17	15.09	16.47	25.97	
학교성적 :						
평균	58.48 _a	49.61 _{b,c}	51.10 _b	46.33 _{b,c}	42.41 _c	20.60**
표준편차	6.53	10.79	10.15	10.76	8.14	

* $p < .01$ ** $p < .001$ 같은 영문자는 .05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비행의 경우 사후검증(Scheffé)을 .10수준에서 하였다. 고독감, 비행, 성적의 분석에서 자유도는 각각 (4, 252), (4, 261), (4, 256)이었다.

3. 고독감과 비행

다섯가지 또래지위에 따라서 고독감이나 비행과 같은 정서적, 행동적 적응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5가지 집단 별로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이 결과는 표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고독감과 비행 모두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우선 고독감에 있어서는, 무시되는 집단이 보통 집단과 비교하여 학교에서 더 고독하였다. 반면 배척받는 집단은 보통집단과 비교하여 고독감 수준이 높지 않았다. 그리고 비행의 경우, 논쟁거리인 집단과 배척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행을 더 많이 하였다.

그리고 비행의 하위유형별로 관련변인이 다르리라는 선행연구의 지적(권정혜 등, 1992)에 따라 48가지 종류의 비행을 요인분석을 통해 6가지 하위비행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으로 하였고 산출된 6개의 요인에 대해 Vari max 직교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묶인 비행요인 여섯 가지에 대해 요인부하가 .40 이상의 항목을 가려내었다. 그 결과 첫번째 요인은 음란서적, 음란비디오, 불량교우접촉, 심한 폭행, 기물파손, 컨닝, 물건훔치기, 그리고 돈내기 도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불량친구와의 접촉과 폭행이 주가 되는 '집단적 비행군'이라고 해석하였다. 두번째 비행요인에는

오락실 출입, 거짓말하기, 욕하기, 장난전화걸기, 어른에 대들거나 반항하기, 귀가시간 어기기 등,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소한 문제행동군'이라고 해석하였다. 세번째 요인에는 요란한 몸치장, 이상한 옷차림, 야한 옷차림, 파마나 염색을 하기, 본드나 부탄가스 흡입 등, 주로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물질남용 및 외모관련비행군'이라고 해석하였다. 네번째 요인은 나이트 클럽 출입, 록카페 출입, 당구장, 성폭행, 이성과 동거경험, 성관계 경험, 음란전화 걸기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향락업소출입과 성관련 비행이 주가 되는 '향락업소출입 및 성관련비행군'으로 해석되었다. 다섯 번

표 5. 도래지위집단과 비행의 유형

	도 래 지 위 집 단					F
	인기집단 (n=52)	논쟁집단 (n=18)	보통집단 (n=97)	무시집단 (n=49)	배척집단 (n=50)	
집단적 비행군 :						
평균	28.15 _{a,b}	36.33 _a	27.97 _b	28.63 _{a,b}	32.66 _{a,b}	3.97*
표준편차	8.85	14.30	8.89	9.94	12.85	
사소한 문제행동군 :						
평균	24.12	25.44	23.27	21.94	24.70	2.42*
표준편차	5.25	5.87	4.90	5.60	6.04	
물질남용 및 외모관련비행군 :						
평균	6.79	6.83	6.30	6.43	6.96	1.54
표준편차	2.44	1.34	.71	1.21	2.75	
향락업소출입 및 성관련비행군 :						
평균	7.71 _b	9.22 _a	7.66 _b	7.82 _{a,b}	8.46 _{a,b}	4.33*
표준편차	1.19	3.96	1.42	1.18	2.09	
유흥업소출입 비행군 :						
평균	8.00	9.06	8.19	8.27	8.92	1.03
표준편차	2.02	2.92	2.60	1.92	4.51	
학교 및 가족이탈비행군 :						
평균	4.31 _b	5.00 _{a,b}	4.59 _{a,b}	4.61 _{a,b}	5.40 _a	3.28*
표준편차	.78	2.87	1.20	1.22	2.59	

* $p < .05$ 같은 영문자는 .05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도는 (4, 261)이다.

제 비행요인에는 호프집 출입, 다방-카페출입, 패싸움, 돈유용 경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유흥업소출입비행군'으로 해석되었다. 여섯번째 비행요인에는 수업태만, 무단결석, 외박, 가출과 같은 항목이 이에 속하여 '가족 및 학교이탈비행군'이라고 해석하였다.¹⁾

또래지위 집단 별로 이러한 하위 비행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그 결과 '집단적 비행군', '사소한 문제행동군', '향락업소출입 및 성관련비행군', 그리고 '가족 및 학교이탈비행군'들은 또래지위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물질남용 및 외모관련비행군'과 '유흥업소출입비행군'은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집단적 비행군'과 '향락업소출입 및 성관련비행군'은 논쟁거리인 집단이 더 많이 하였지만 '가족 및 학교이탈비행군'의 경우에는 배척받는 집단이 많이 하였다. 한편 '사소한 문제행동군'은 사후검증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가적인 관심사로서 성적이 또래지위 집단 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인기있는 집단이 나머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성적이 좋았고 배척받는 집단은 성적이 가장 나빴다(표 5 참조).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무시되는 집단이 가장 고독하다고 느끼며, 논쟁거리인 집단과 배척받는 집단이 비행을 가장 많이 하였다. 비행을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때 반에서 좋아하는 또래도 많고 또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은 그런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논쟁거리인 집단)은 '집단적 비행군'과 '향락업소출입 및 성관련비행군'에 속하는 비행을 많이 하였다. 반면 싫어하는 급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배척받는 집단은 '가족 및 학교이

탈비행군'에 속하는 비행을 많이 하였다. 또 학교 성적은 인기있는 집단이 보통집단에 비해 좋았고, 배척받는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성적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 의

결과에 대한 논의

1. 또래지위와 행동특성

또래지위를 5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 별로 행동특성의 차이를 본 결과, 인기있는 집단은 협동을 잘하고, 신뢰로우며, 친절하다고 또래에 의해 평가되었다. 논쟁거리인 집단은 협동을 잘하지만, 싸움을 먼저 걸고, 약올릴 수 없으며 집단적으로 하는 일을 망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논쟁거리인 집단과는 달리 배척받는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협동적인 태도 수준이 낮고 신뢰할 수 없으며 친절하지 않고, 대신 싸움을 먼저 걸고 집단적으로 하는 일을 망치고 또 약올릴 수 없는 존재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무시되는 집단은 수줍어하거나 또래의 놀림감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행동에 있어서도 특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특히 배척받는 집단은 단순히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상호작용 속성이 부족하다(Parkhurst & Asher, 1992)는 사실 역시 입증되었다. 따라서 배척받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중재프로그램은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친절한 행동, 협동적인 행동, 신뢰할 만한 행동들을 증가시키는

1) 각 비행요인 별로 해당하는 문항 수는 각각 18, 7, 6, 7, 6, 4 문항이었다. '없다'의 반응이 1점이므로 해당되는 행을 한번도 안한 경우일지라도 각 비행 종류별 기본점수는 해당 비행요인의 무항 수와 일치한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무시되는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비주장적인 행동특성에 많이 지명되었다. 이 결과는 외국의 연구들과는 다른 것으로서 이들은 수줍어하거나 학급 내에서 또래에 의해 많이 놀림을 받는 존재였다. 이들의 고독감 및 사회적 불만족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집단은 정신건강면에서 매우 주의하여야 할 대상임이 분명하다.

2. 갈등해결전략

다섯 가지 또래지위 집단에 따라 갈등해결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이전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인기있는 집단은 타협을 통해 갈등상황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 논쟁 집단이나 배척받는 집단은 화를 냄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기술향상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즉 Asher(1985)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무리 성공적인 친밀한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참가 아동 중 대략 50%만이 향상을 보였다는 것(다시 말하면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일지라도 40~50%는 그 훈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배척받는 청소년들이 또래들로부터 좀 더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갈등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무시되는 집단은 갈등상황을 회피해버리는 경향이 다소 있다고 평가되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3. 또래의 수용, 우정관계와 고독감

고독감의 측면에서는, 배척받는 집단이 아닌 무시되는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고독감 및 사회

적 불만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 연구결과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써, 이는 다음 두가지 방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급 크기의 차이이다. 즉, 사회측정적인 방법을 통해 5가지 또래지위 집단을 나누었을 때 외국의 경우 보통 한 학급이 2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통 52~54명 정도가 한 학급 인원이었다.

한 학급의 인원수가 많으면 같은 학급안에서 친구집단이나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이 형성될 가능성이 더 높고 배척받는 집단일지라도 친한 친구를 가질 가능성이 많다. 공격적인 아동은 비공격적인 아동보다 공격적인 아동을 친구로 둘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더우기 그들끼리 형성된 친구집단내에서는 공격적인 행동이 서로 강화를 받으며 지지된다(Cairns, Cairns, Neckerman, Gest, & Gariépy, 1988).

그런데 본 연구에서 무시되는 집단과 배척받는 집단은 모두 다 또래의 수용도는 낮지만, 이들 두 집단은 친한 친구가 있는가에 따라 고독감 수준이 매우 다를 수 있다. 즉, 학급안에서 공격적인 청소년들은 서로 친구관계가 형성되어 이들과의 정서를 공유함으로써 고독감을 덜 느끼는 반면, 무시되는 집단은 배척받는 집단이나 논쟁거리인 집단과는 달리 친구가 아예 없기 때문에 보다 더 고독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배척받는 집단은 학급의 크기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같은 반안에서 친구관계를 형성하여 다른 친구들로부터 받는 배척경험의 효과를 보상하는 반면, 무시되는 집단은 친구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고독감을 더욱 많이 느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이들 무시되는 집단의 친구관계 및 고독감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 가능성은 학교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또한 학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은, 서구의 학생들에 비해 형제관계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직업관계 등에서 대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compensation)효과가 적을 수 있다. 보상이란 사회적 연결망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써, 만약 어떤 종류의 관계가 좋지 못하더라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대체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해 심리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면 보상되었다고 말한다(East & Rook, 1992).

그런데 대체적인 사회적 연결망이 다른 문화에 비해 발달되지 못하는 우리의 교육 현실때문에, 청소년들은 또래들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 경험이 다른 관계를 통하여 보상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더욱 중요하며, 학교에서 또래의 수용정도도 낮고 친한 친구도 없는 무시되는 학생들은 고독감 및 사회적 불만족을 경험하기 쉬울 것이다.

4. 또래지위 집단과 비행

본 연구결과, 논쟁거리인 집단과 배척받는 집단이 비행을 더 많이 저질렀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화를 내어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학생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이한 것이다. 친구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갈등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되, 이런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청소년들이 비행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논쟁거리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행빈도가 많은 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학급의 크기가 크다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많은 급수에 의해 일반적으로 미움을 받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다른 학생들과 우정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논쟁거리인 집단의 경우, 싫어하는 또래들도 많지만 공격적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좋아하는 친구로 지

적될 수도 있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논쟁거리인 집단이 집단의 리더로써 평가된다(Coie 등, 1982)는 사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따라서 논쟁거리인 집단은 배척받는 집단과는 달리 또래와의 관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쟁거리인 집단은 배척받는 집단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협동을 잘하며 또한 성적이 좋고 다른 긍정적인 행동특성에서도 배척받는 집단보다 또래에 의해 더 많이 거명되었다. 따라서 논쟁거리인 집단은 한 반에서 공격적인 청소년들끼리 형성되어 있는 집단내에서 리더로써 부각되며,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개는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싫어하는 대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비행을 하위 유형으로 구분해 볼 때, 이 집단의 청소년들이 여럿이 어울려 다니며 하는 '집단적 비행'과 '항략업소출입 및 성관련비행'을 많이 한다. 사실상 이들 집단은 사회적인 기술이 어느 정도 있어서 좋아하는 또래를 많이 가지고 있고, 따라서 여럿이 몰려다니면서 비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배척받는 집단이 결석, 수업태만, 가출, 그리고 외박과 같은 '가족 및 학교이탈비행'을 많이 한다는 사실은 이들을 장기적으로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또래로부터 배척받는 경험은 특히 장기적인 효과를 갖는다(Kuper-smidt & Coie, 1990 ; Parker & Asher, 1987)는 사실은 이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적응에 더욱 취약하게 됨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들 집단은 학교 성적 면에서도 가장 나쁜 점수를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앞으로 학교체제에서 무사히 적응하기 어려운 집단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는다. 따라서 배척집단에 대한 장기종단 연구를 통하여 이들이 과연 행동적인 문제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비교적 적은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5가지 또래지위 집단 중에서도 다양한 하위 집단의 특징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최근 연구들에서 배척받는 학생들이 동질적인 집단이라기 보다는 몇가지 하위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Bierman, Smoot, & Aumiller, 1993 ; Cillssen, van Ijzendoorn & van Lieshout, 1992 ; French, 1988 ; Hymel, Bowker & Woody, 1993 ; Rubin 등, 1990). 우리가 이들 하위집단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 하위집단 별로 또래관계가 적용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Parkhurst & Asher, 1992).

한 연구에서 배척받는 집단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했을때, 배척받는 집단은 '공격적인 배척집단'과 '비공격적인 배척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 하위집단은 사회적인 행동면에서 분명히 구분되었다(French, 1988). 그리고 비인기아동을 대상으로 공격적이거나 또는 위축되었는가의 기준으로 집단을 세 집단(공격적인 비인기집단, 위축된 비인기집단, 공격적이면서 위축된 비인기집단)으로 나누었을때 사회적 행동 뿐만 아니라 용모나 전반적인 스타일 등 비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또 이들 세 집단은 자신의 사회적 유능함을 평가하는 양상이 달랐다. 즉 '공격적이면서도 위축된 비인기집단'과 '공격적인 비인기집단'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위축된 비인기집단'은 자기 자신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였다(Hymel, Bowker & Woody, 1993).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인기가 없고 또래에 의해 수용되지 못하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사회적

인 행동이나 외모, 그리고 인지적 판단 영역 등에서 분명히 구분되는 하위집단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매우 흥미있는 연구주제이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적은 피험자 수로 인해 이들 하위집단별 차이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피험자의 규모를 확대하여, 사회적 및 비사회적 영역면에서 하위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후속 연구의 과제이다.

둘째, 횡단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또래들의 낮은 수용이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했기 때문에 또래의 거부, 수용의 경험이라는 정도 지속된 것인지 그 수준을 통제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고독감과 사회적 불만족의 경우, 무시되는 집단과 배척받는 집단을 비교해보면 이 두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 수용되지 못한 경험이 얼마나 지속적이었는지에 대해 고려한다면, 이 두 집단의 정서적인 적응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비행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에서도 본 연구 결과, 논쟁집단과 배척집단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또래로부터 수용된 경험의 정도를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또래로부터 배척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성적이 가장 나쁘고, 비행 중에서도 외박, 가출, 결석, 수업태만과 같은 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몇년 후 비행, 범죄와 같은 행동상의 적응적 측면에서 그 결과가 가장 좋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측정법으로 또래의 수용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흔히 친한 친구관계를 측정하는 것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흔히 사회측정법에 의해 측정되는 또래의 수용여부는, 또래관계에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변별해내어 이들의 또래관계를 개선시켜 적응도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흔히 우정관계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Parker & Asher, 1993). 가장 좋아하는 같은 반 또래를 거명하는 것은,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를 지명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전자가 또래의 수용(acceptance)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우정관계(friendship)를 측정한다.

개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인으로써도 우정관계는 또래의 수용과는 구분된다. 한 연구에서 친한 우정관계가 있는가의 여부는 그 관계의 질, 또래의 수용 정도와 함께 고독감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었다(Parker & Asher, 1993).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또래의 수용정도 못지 않게 상호적인(reciprocal) 우정관계의 형성여부 및 그 관계의 질(quality)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에 의한 보상(補償) 효과이다. 학급에서 또래에 의해 무시되거나 배척받을지라도 다른 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보상받을 수 있다면 학급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이 정서적 또는 행동적 부적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Parker & Asher(1989)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반이나 학교에 구애받지 말고 가장 친한 친구 세명을 거명하게 하였을 때 같은 반이 아닌 친한 친구를 거명한 것은 1명이 채 ($M=0.9$ 명) 안되었다(Parker & Asher, 1993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 연구는 국민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같은 반, 같은 학교가 아닌 친한 친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더우기 친한 친구 3명 중에 거의 한 명에 가까운 것은 적은 수가 아니다. 따라서 같은 반, 같은 학교가 아닌 친한 친구관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친구관계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형제관계로부터 받는 지지를 통해서 배척경험이나 무

시되는 경험이 보상될 수 있는지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권정혜, 이봉건, 김수현(1992). 부모양육변인들과 교우관계변인들이 청소년 초기의 숨은 비행에 미치는 효과. *92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한국심리학회.
- Asher, S. R.(1990).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her, S. R.(1985). An evolving paradigm in social skill training research with children. In B. H. Schneider, K. H. Rubin, & J. E. Ledingham(Eds.), *Children's peer relations: Issues i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ew York : Springer-Verlag.
- Asher, S. R., & Dodge, K. A.(1986). Identifying children who are rejected by their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2(4), 444-449.
- Asher, S. R., Parkhurst, J. T., Hymel, S., & Williams, G. A.(1990). Peer rejection and loneliness in childhood.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253-273).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erman, K. L., Smoot, D. L., & Aumiller, K. (1993). Characteristics of aggressive-rejected, aggressive(nonrejected), rej-

- ected(non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64*, 139-151.
- Bryant, B. K.(1992).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relation to children's peer relation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3*, 35-50.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Gest, S. D., & Gariépy, J.(1988). Social networks and aggressive behavior : Peer support or peer rejection?*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15-823.
- Cassidy, J., & Asher, S. R.(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 Cillessen, A. H., van Ijzendoorn, H. W., van Lieshout, C. F., & Hartup, W. W. (1992). Heterogeneity among peer-rejected boys : Subtypes and stabilities. *Child Development*, *63*, 893-905.
- Coie, J. D., & Dodge, K. A.(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3), 261-281.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tatus :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0.
- Coie, J. D., Lochman, J. E., Terry, R., & Hyman, C.(1992). Predicting early adolescent disorder from childhood aggression and peer reje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5), 783-792.
- Dishion, T. J., Patterson, G. R., Stoolmiller, M., & Skinner, M. L.(1991). Family, school, and behavioral antecedents to early adolescent involvement with anti-social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7*(1), 172-180.
- Dodge, K. A., & Feldman, E.(1990). Issues in social cognition and sociometric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119-155).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ast, P. L., & Rook, K. S.(1992). Compensatory patterns of support amo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 A test using school friends and siblings. *Developmental Psychology*, *28*(1), 163-172.
- French, D. C.(1988). Heterogeneity of peer-rejected boys :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subtypes. *Child Development*, *59*, 976-985.
- Hartup, W. W.(1985). Relationships and their significance in cognitive development. In R. A. Hinde, A. Perret-Clermont, & J. Stevenson-Hinde(Eds.), *Social relationships and cognitive development*(pp. 66-82). Oxford : Clarendon Press.
- Hymel, S., Bowker, A., & Woody, E.(1993). Aggressive versus withdrawn unpopular children : Variations in peer and self-perceptions in multiple domain. *Child Development*, *64*, 879-896.
- Kazdin, A. E., Esveldt-Dawson, K., French, N. H., & Unis, A. S.(1987). Problem-solving skills training and relationship therapy in the treatment of antisocial child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1), 76-85.
- Kupersmidt, J. B., Coie, J. D.(1990). Pread-

- 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1990). The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274-305).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sten, A. S., Morrison, P., & Pellegrini, D. S.(1985). A revised class play method of peer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523-533.
- Moreno, J. L.(1934). *Who shall survive? A new approach to the problem of human interrelations*. Washington, DC : Nervous and Mental Disease Publishing.
- Parker, J. G., & Asher, S. R.(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Parker, J. G., & Asher, S. R.(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arkhurst, J. T., & Asher, S. R.(1992). Peer rejection in middle school : Differences in behavior,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conc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2), 231-241.
- Patterson, G. R.(1986). Performance models for antisocial boys. *American Psychologist*, 41(4), 432-444.
- Patterson, G. R., Bank, L., & Stoolmiller, M. (1990). The preadolescent's contributions to disrupted family process.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 A transitional period?*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s.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 Petersen, A. C., & Hamburg, B. A.(1986). Adolescence : A developmental approach to problems and psychopathology. *Behavior Therapy*, 17, 480-499.
- Rubenstein, J. L., & Feldman, S. S.(1993). Conflict-resolution behavior in adolescent boys : Antecedents and adaptational correlat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1), 41-66.
- Rubin, K. H., LeMare, L. J., & Lollis, S. (199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 Developmental pathways to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217-249).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uchinich, S.(1987). Starting and stopping spontaneous family confli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591-601.

The Effect of Peer Acceptance on Loneliness and Delinquency in Early Adolescence

Eun-Young Mun and Gene Yoon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patterns of behavior,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loneliness, and delinquency associated with peer acceptance in early adolescence. Second grade middle school male students ($N = 454$) were administered with the following six measurements: positive and negative sociometric nominations, peer behavioral assessment items,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questionnaire, and a newly developed problem behavior questionnair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eer perceptions of the behavioral correlates of five sociometric status groups were found to reveal distinct profiles. Second, in terms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he rejected and the controversial students were viewed as using the anger retaliation strategy more than did the popular, the neglected, and the average students. And the popular subjects were viewed as using a calm approach to conflict resolution more than other subjects. Third, the neglected students were found to report higher levels of loneliness. However, the rejected students did not differ on this dimension from the average status students. Finally, with regard to delinquency, the controversial and the rejected students were found to report higher rates of antisocial acts. Results are interpreted in terms of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adjustment. Replication of the present findings with other samples is clearly needed.